

일본기업의 환경도시 관련 투자동향

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기업들의 환경도시건설과 관련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. 파괴된 도시건설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고 스마트타운 건설시장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음.

-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기업들의 환경도시건설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
 - 파나소닉은 2011년 5월 말, 후지사와시에 약 1,000세대 규모의 스마트타운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음.
 - 2013년 건설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, 축전지를 모든 주택, 상업시설, 공공기관에 표준장비로서 설치할 계획임.
 -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 기기를 도입하고 이들 기기를 IT 기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화하여 전력 사용량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.
 - 이를 통해 이 지구 전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70%, 생활용수 사용량 30%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.
 - 도요타, 닛산, 신일본제철, IBM 등 자동차, 철강, IT 관련 기업들도 기타큐슈시, 요코하마시 등이 실시하는 스마트 타운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.

- 이들 도시들은 2008년부터 환경모델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스마트 타운 실증사업을 전개하고 있음.
- 이러한 실증사업에 자동차, 철강, IT기업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표준설정, 스마트타운의 시스템화, 수출전략 등을 구상하고 있음.

□ 스마트타운에 대한 일본기업의 관심이 고조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.

- 첫째,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동북지역 도시를 스마트타운으로 건설하자는 기운이 일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임.
-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번 지진으로 파괴된 자본스톡은 16조~25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어 복구수요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.
- 둘째, 일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임.
- 금년 G8 정상회담에서 칸 나오토 총리는 태양광 패널을 1천만 세대(현재 약 70만 세대 설치 완료)에 설치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.
- 동 회의에서 칸 수상은 2020년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%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종래의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것임.
- ※ 2010년 6월에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20%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
- 또한 향후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건설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공급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

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.

- 셋째, 스마트타운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임.
 - 유럽, 미국, 중국 등도 각각 스마트타운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강력히 지원하고 있어서 스마트타운과 관련된 국제경쟁이 가열되고 있음.
 - 스마트타운 관련 시장은 2030년까지 누계 3천 조 엔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장비생산업체 등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실증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.

□ 일본기업의 스마트타운 수출경쟁력 강화에 주목

- 일본기업들이 스마트타운 건설에 필요한 장비 등의 수출을 증진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건설 전체를 총괄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.
- 미국정부는 최근 요소기술력을 가진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스마트타운을 둘러싼 향후의 국제경쟁과 협력관계의 전개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음.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1.5.31). 「日本の競争力磨く環境都市」.